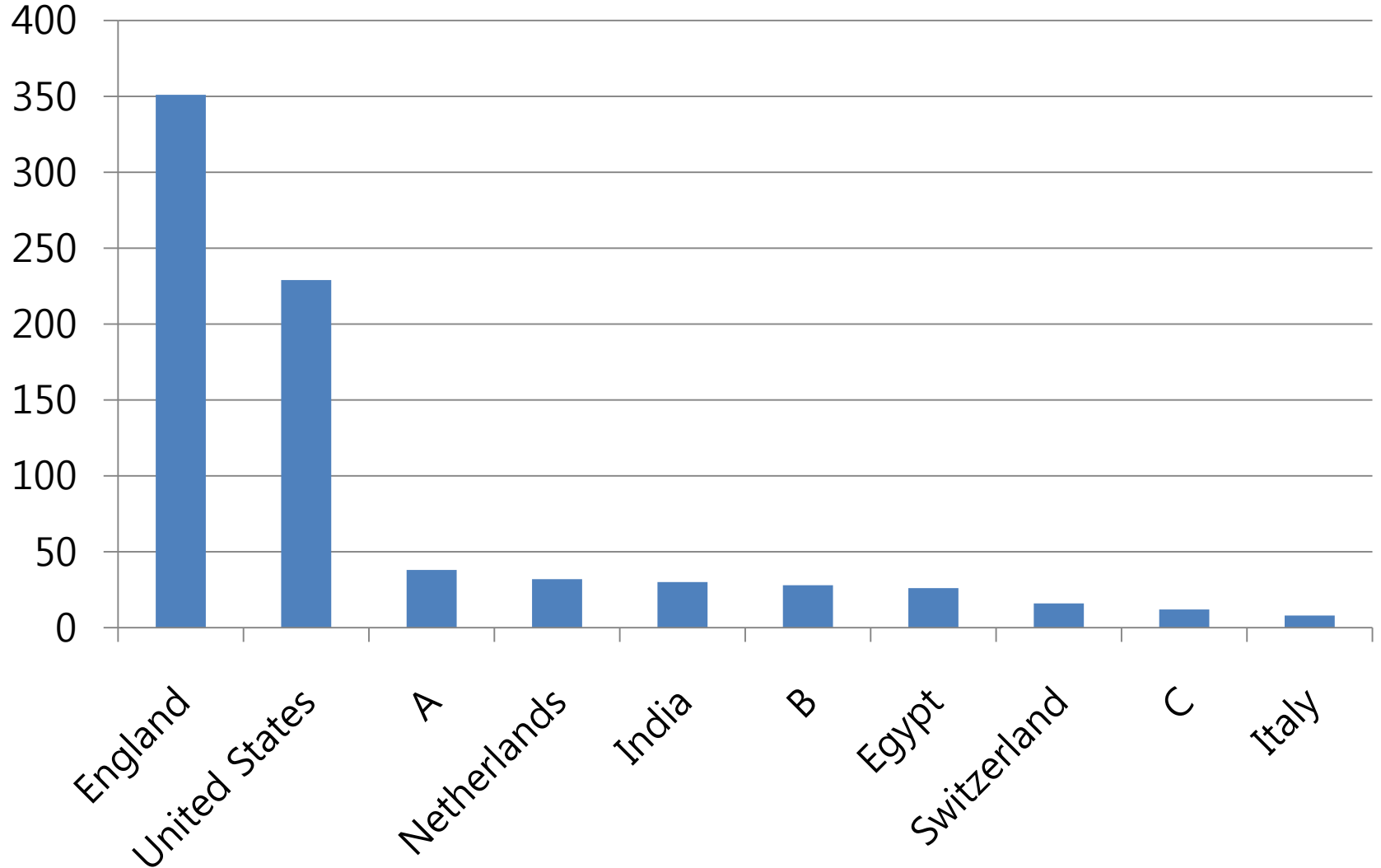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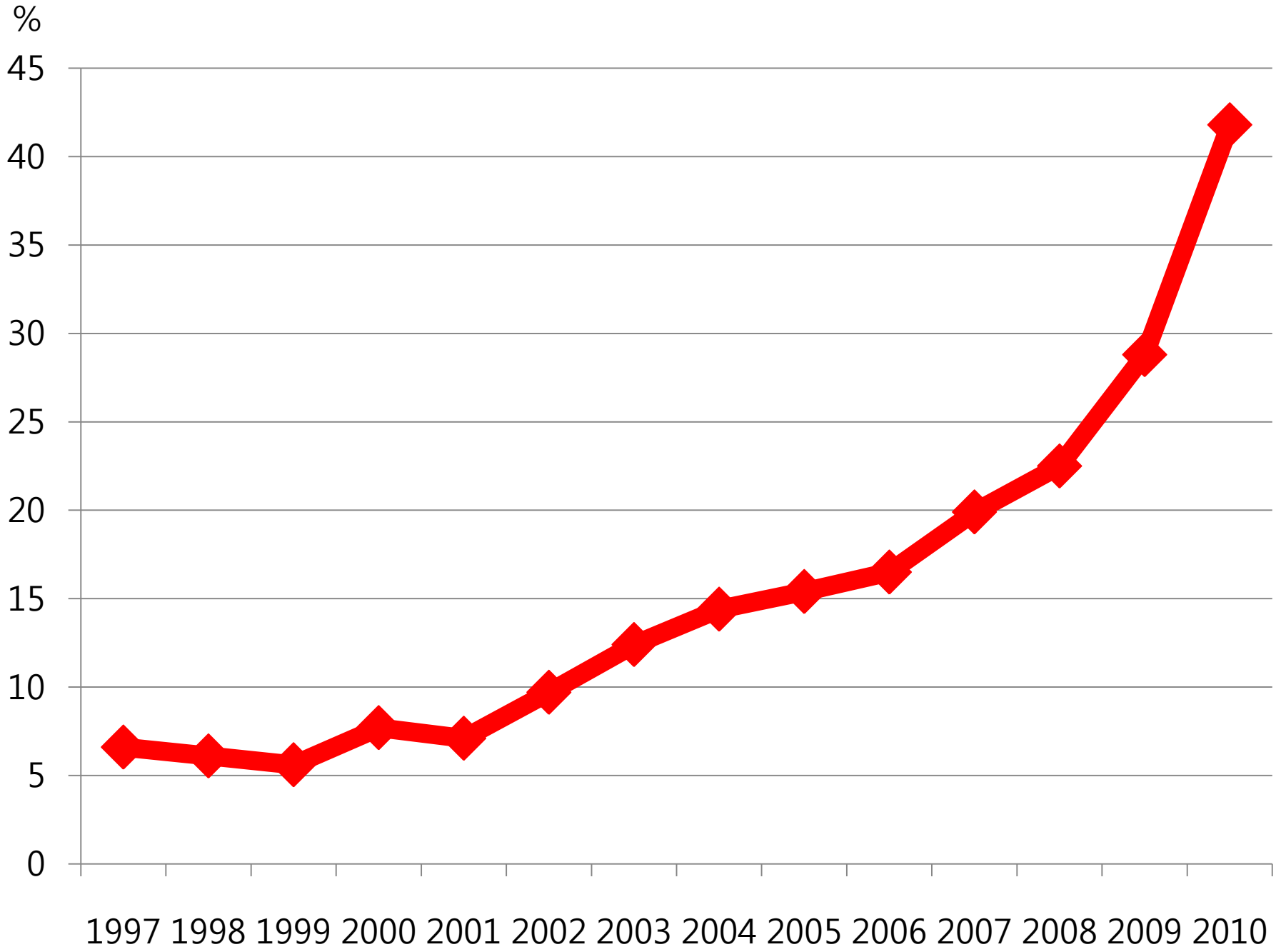
간단하고 쉬운

PubMed Central등재

허선

질문 1. 다음은 PMC 학술지의 **캐나다, 독일, 한국**의 나라별 종수이다. A, B, C 국가명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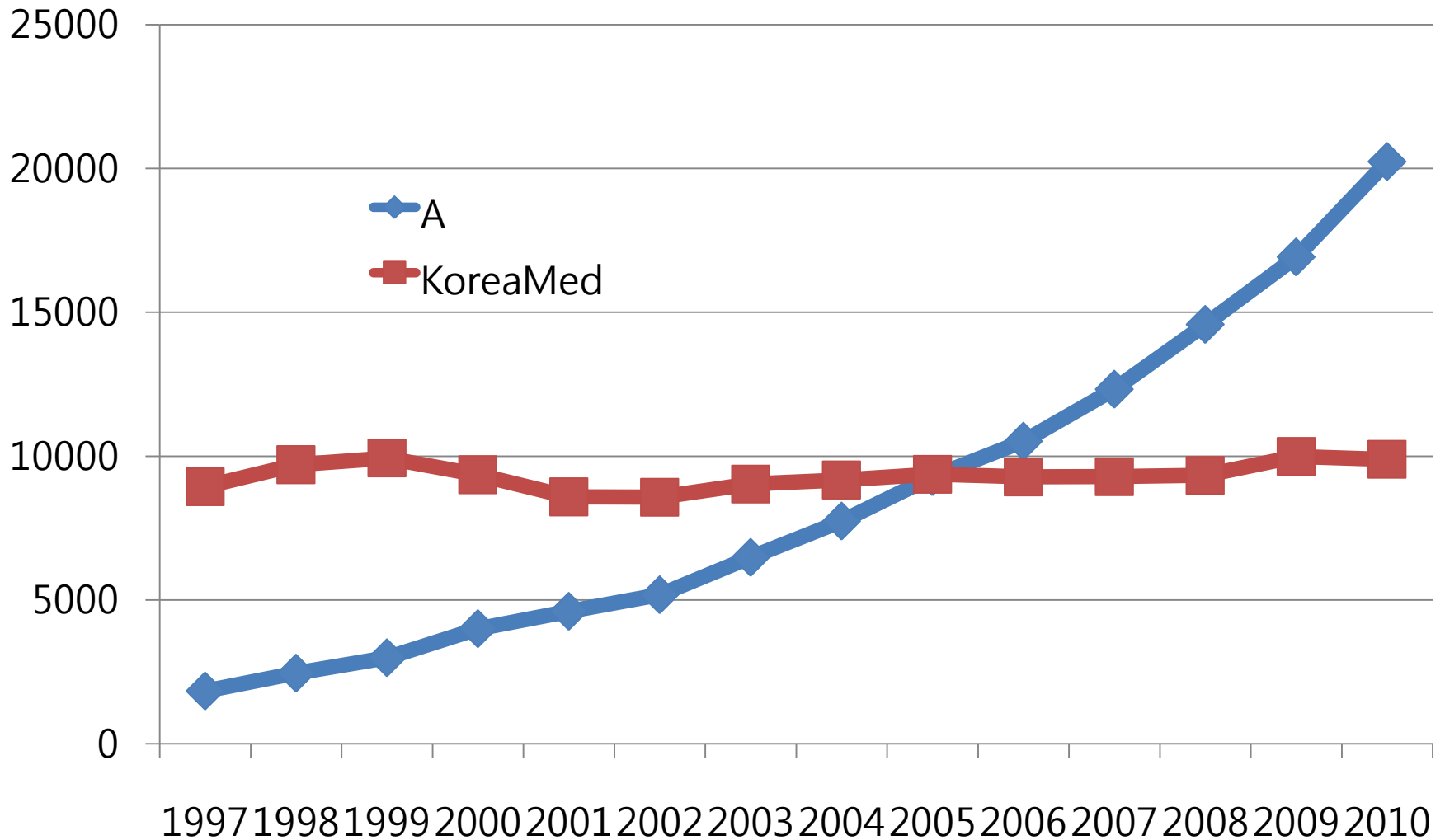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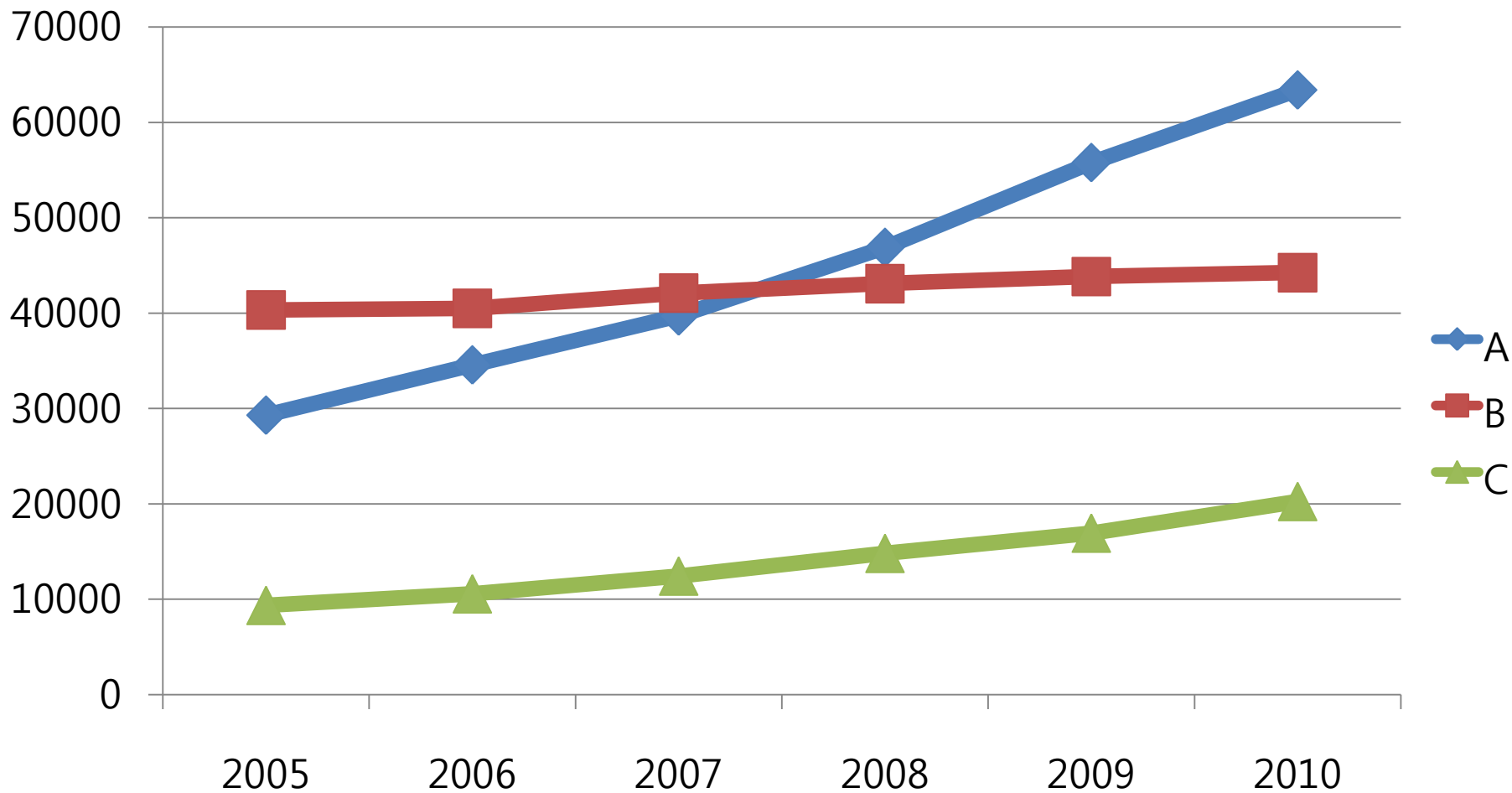
질문 2. KoreaMed에 관련된 이 그림의 제목은?

- 1. KoreaMed 에서 DOI 기술한 논문 비율
- 2. KoreaMed에서 SCIE 에 인용받은 논문 비율
- 3. KoreaMed 학술지 가운데 SCIE 등재 학술지 비율
- 4. KoreaMed 논문 가운데 영문 논문 비율
- 5. KoreaMed 저자 가운데 외국인 비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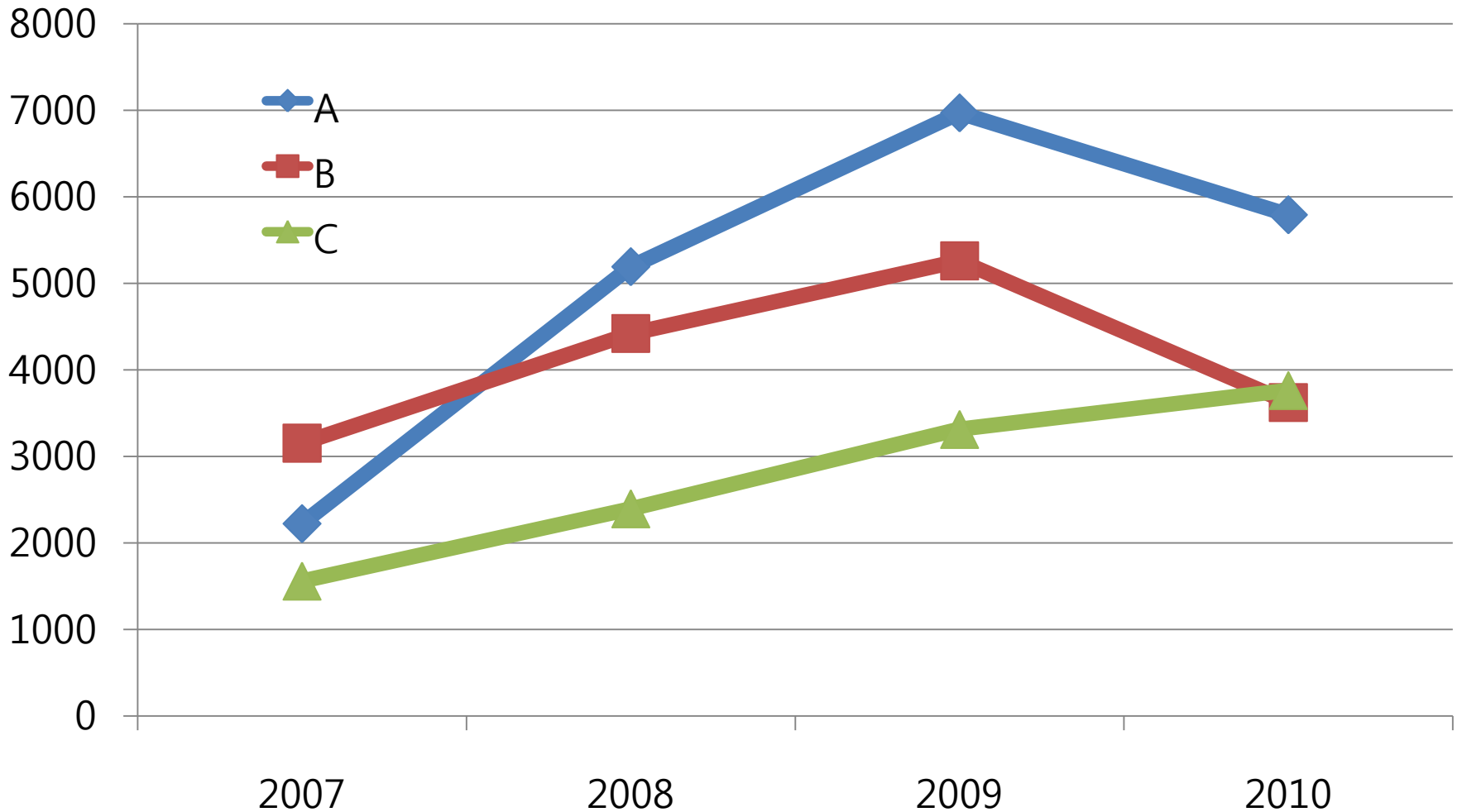
질문 3. 발행국을 Korea 로 하였을 때 논문 수이다. A 데이터베이스는?



질문 4. 중국, 한국, 일본의 PubMed논문 수이다. A, B, C 는 각각 어느 나라?



질문 5. 한, 중, 일의 PMC 논문수이다. A, B, C 해당 나라는?



25000
20000
15000
10000
5000
0

USA

GERMANY

CHINA

CANADA

FRANCE

INDIA

KOREA

UK

JAPA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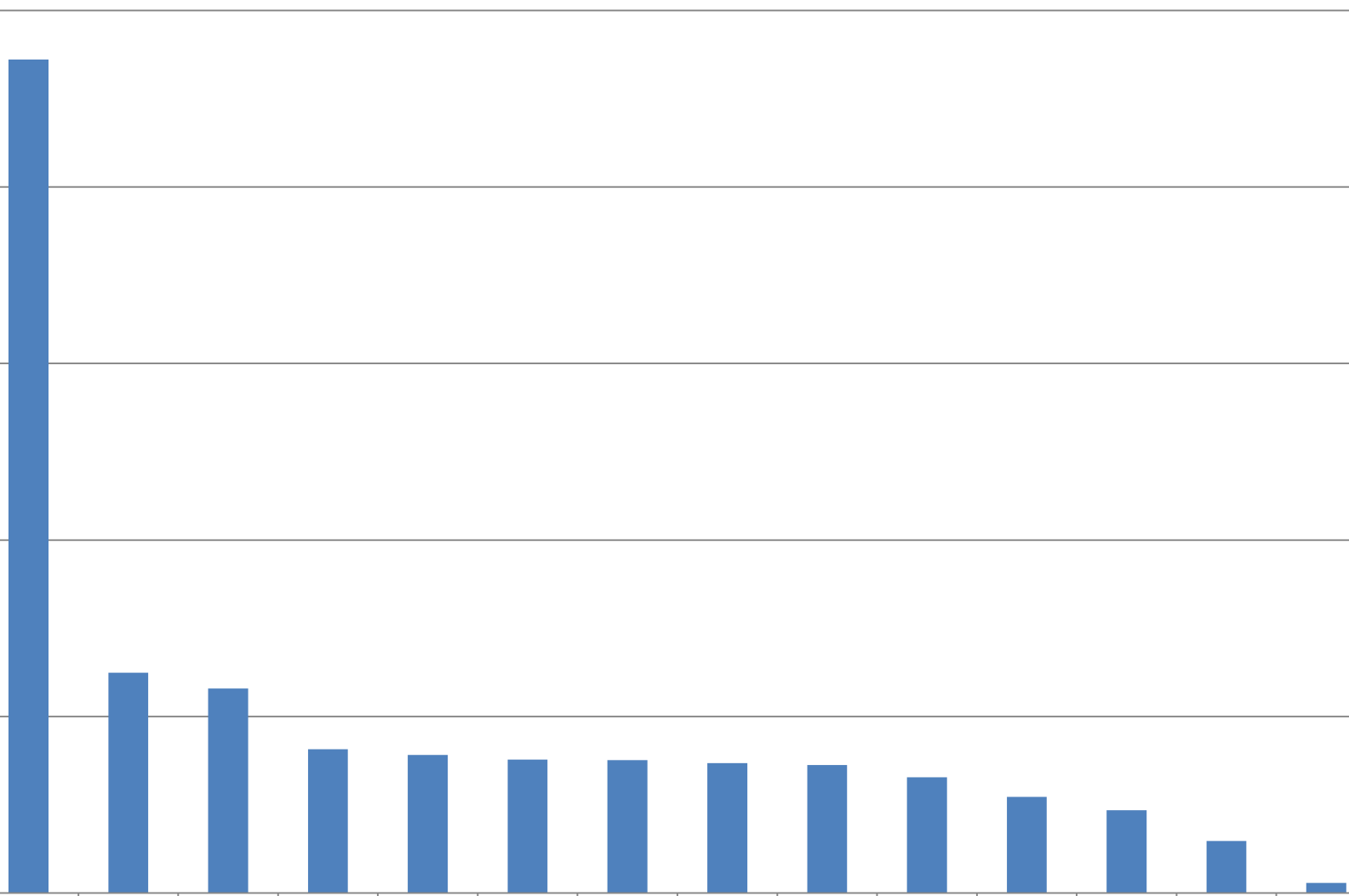
ITALY

AUSTRALIA

SPAIN

BRAZIL

RUSSIA



질문 6. 왜 학술지가 미국 NLM Catalog 에 없을까?

- 1. 미국 NLM Catalog을 들어본 적이 없다.
- 2.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른다.
- 3. 한 부 보내는 발송 경비가 부담이다.
- 4. 발송 목록에 있다가 편집인이 바뀌면서 발송목록에서 사라졌다.
- 5. 어디다 보내야 하는 지 받는 곳 주소를 모른다.

질문 7. 학술지를 영문으로 발행하지 못하는 이유는?

- 1. 학회 경비 부족하다
- 2. 전공의나 회원이 영문 논문 쓸 수 없다.
- 3. 국문으로 발행하여 쉽게 읽혀야 한다.
- 4. 국제학술지로 키우고 싶은 생각 없다
- 5. 일부 회원의 결사 반대

- **PUBMED CENTRAL?**

간단하고 쉽다

- 영문 발행
- SYNAPSE 참여
 - → PMC 등재
 - PUBMED 등재

영문이면서 PMC 미등재?

- 1. 경비
- 2. 외국 상업 출판사 관여
- 3. PMC가 무엇인가?

질문 8. 2011년도 PMC 등재 **준**
비 학술지 종수?

• 20

- 영문 전환 학술지 편집인과 학회에 감사
-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 향상
- 1996년도에 비교하면 꿈같은 학술지 발전

숙제

- **PMC INTERNATIONAL**
- **UK PMC**
- **CANADA PMC**
- **KOREA PMC**